

업계소식

육가공위생관리인회의

서울시 육가공위생 관리인회(회장 유갑용)은 7월27일 육가공협회 회의실에서 87년도 제4차 모임을 갖고 회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 신장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육가공위생 관리인회는 지난 83년 5월 서울시 육가공장의 수의사들이 첫 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여 육가공업계 외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취지하에 서울시 육가공 자체검사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 위생관리인회는 85년 5월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2대 회장으로 異하준씨를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지난 3월 유갑용씨를 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회원 수는 31명. (본지 전국 육가공업체 명단 참조).

육가공기술인회 학술발표회 가저

한국육가공기술인회(회장 李輔明)는 지난 6월21일 大田중경공업전문대학에서 회원 및 관련 업계측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제7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규현씨(제일제당)가 「무첨가혼합소시지」를, 金천재씨(건국대 교수)가 「육의 동결 및 해동과정에 관한 연구」를 金安규씨(롯데햄·우유)가 「돈육소시지에 이용되는 온도체」 「골발육과 냉동체골발육의 비교」, 金언현씨(천양교역)의 「육가공에 있어 이종단백질의 이용」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축산물 유통동향 자동응답

축협중앙회는 축산물 유통 자동 응답장치 3회선을 증설, 써비스를 강화.

▲ 기존 783-7101 ▲ 신설 782-9761~3.

소비자보호원 문열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소비자 욕구를 전 문적,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공익 특수법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진호)이 7월1일 문을 열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 물품, 용역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해 줌은 물론 ▲ 물품의 가격, 품질,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조사 ▲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시책의 연구, 건의 ▲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및 소비생활과 관련한 편익증진 방안의 중

합적인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한국식품연구원 발족 추진

농산물과 식품가공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반월공단에 재단법인 성격의 한국종합식품 연구원이 발족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연구원의 설립비용은 1백60억원으로 반월공단의 식품공단에 3만~5만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설립될 식품연구원이 가동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종합식품연구원을 포함, 유사 기관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모두 흡수, 단일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회관 문열어

대한양돈협회(회장 全東龍)는 양돈회관개관 기념식을 7월16일 가졌다. 대지 1백92평 위에 연건평 5백70평인 양돈회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모두 10억4천여 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양돈협회는 회관 마련을 계기로 양돈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소 설치, 돈육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센터, 국내외 시장 수요와 창조사업에 최대한 활용방침이라고 한다. 양돈협회 새 주소 강남구 역삼동 776(전화 553 : 3942~7).

한편 동 협회는 8월2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양돈회관의 상호를 (주) 한국양돈진흥사업회로 변경했다.

축협, 진공포장육 공급

축협중앙회는 냉동포장육 보다 맛, 신선도가 좋은 진공포장육을 9월부터 시판. 진공포장육은 섭씨 0~2도에서 냉장유통되며, 수분과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약 10주간 유통할 수 있다고.

우·돈육으로 육포 생산

新昌商易(대표:김남찬)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육포를 생산, 시판하게 되었다.

이들 제품은 부피가 적고 칼로리가 낮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등산 시 비상 식량이나 어린이나 수험생의 간식, 어른들의 술안주 등으로 적합하다고.

소의 간·콩팥·지라 등 과립화에 성공

東洋畜産(대표:金賢培)은 소의간·콩팥·지라 등을 과립화한 생품을 개발, 시판을 나섰습니다.

이 제품은 간·콩팥·지라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60°C 전후로 저온 건조한 다음 분쇄하여 살균 처리한 것으로 간·콩팥·지라 등을 생으로 먹을 때의 불쾌감을 제거한 것이다.

1회분 용량은 3g으로 물에 쉽게 녹여서 마실 수 있도록 과립화되어 있으며 판매는 未來産業이 대행하고 있다고.

한국축산학회 정총 회장에 韓錫紘 교수

한국축산학회(회장 韓錫紘)는 제43회 학술발표회 및 제37회 정기총회를 지난 7월 11일 강원대에서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번식, 생리, 육종, 가공, 반추영양, 초지, 단위영양, 사료 등의 4개 분과로 구분, 진행되었으며 총 1백 12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동 학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韓錫紘교수(건국대 축산대)를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金康植박사(축산시험장장), 제2부 회장에 朴英一박사(서울대 농대), 제3부 회장 배대식박사(충북대 농대)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정창조 제주대 교수와 池錫하국립종축원장이 공적상을, 과학기술원 李남형박사가 학술상을 수여 받았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침체와 시장 개방압력을 극복 하고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의 보다 획기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또한 학회는 대학, 연구소, 양축가의 대화의 장소, 평생 교육의 장소, 산학협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대 농대학장 吳鳳國교수 임명

서울농대 吳鳳國교수(62)가 지난 7월28일 제10대 학장에 임명됐다. 모교인 서울농대에서 35

년간 후진 양성에 심혈을 쏟고 있는 吳학장은 「가축육종학」 등 10여 편과 「국산 종계개발에 관한 연구」 등 1백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 축산학계를 비롯 업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크게 나왔다.

서울농대 축산학과장에 임경순 교수 임명.

서울대는 농과대학 축산학과장에 임경순 교수를 새로 임명했다. 8월1일 학과장에 임명된 임 교수는 35년 5월 서울에서 출생, 서울농대 축산학과를 거쳐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번식관계 권위자로, 학계는 물론 업계에 이미 정평이 나있다.

한국 가금학회 주소변경

한국가금학회(회장 吳世正)는 7월28일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564 축산시험장내로 주소를 변경. 전화 (0331)-32-5116-8.